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언젠가 부채로 돌아와요"

"육방예경 가르침 따르면 가족 붕괴·노사 갈등 등은 절로 풀립니다"

'인과 믿는 것' 수행 첫걸음…삼독없애야 폭력근절

아라한과 증득에 앞서 이웃 화목·정의 실현 중요

등 승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도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잘 교육을 받은 후에 많은 승려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능력에 맞는 교육기관, 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 등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 피리웨나의 역사는 2천년이 넘습니다.

승단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은 재가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피리웨나에서는 승려들의 교육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의 교육도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승려들의 교육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승단 스스로가 사회적인 깨침을 통한 진보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스님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던가, 또는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등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학생 모두가 도회지로 나가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스님들이 대신 받아서 마을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회향 뿐 아니라 실생활적인 교육의 회향이기도 한것이죠.

또 다른 것은 승단 스스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신경을 써야할 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스리랑카는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나라 입니다. 불교도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승단에서는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현재 스리랑카에는 싱할라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종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종족 분규가 마치 유행병인것 처럼 퍼지고 있습니다만 스리랑카도 저희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작된 종족 분규입니다.

스리랑카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때 영국 정부는 저희들을 우민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노력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비록 그들의 식민지였지만 영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불교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저항 하였죠. 이때 영국 정부는 자신들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남인도로부터 다수의 타밀인들을 이주 정착시켜 오늘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것 입니다. 이것이 스리랑카 문제의 시작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물론 승단 역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승단에서는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타밀인들에게도 호소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폭력은 배제 되어야 합니다. 불법에서 삼독으로 표현되는 마음으로부터의 폭력, 실제 개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폭력, 사회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의 추구를 위한 폭력등 우리는 많은 폭력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폭력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피상적인 거부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삼독의 근원을 찾아내어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폭력을 조장한 귀절을 찾아 볼수 있습니까?

어디 부처님 이후의 전륜성왕이라고 불리우는 아쇼카 황제의 치적중에 폭력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이는 세계사에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나라치고 폭력을 사용한 나라가 없음을 알리는 좋은 예이기도 한 것 입니다.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폭력을 우리가 방조, 조장 할 수는 더욱 없는 것 입니다.

저희 스리랑카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폭력적 상황은 불교라는 종교적 매개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오늘 법회에서 설하신 경전이 육방예경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는지요?

▲육방예경의 내용은 나를 중심으로한 동 서 남 북 상 하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찬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주위 환경에 모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특히 이 경을 택했던 이유는 제가 법문을 하게 된 이 사원의 이름이 효를 강조하고 수행하는 곳인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고 또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절한 경이라고 생각 되었기 때문 입니다.

한국이건 스리랑카이건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붕괴, 사제간의 불신, 승속의 반목, 노사간의 갈등등 모든 문제를 이 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본 한국에서의 많은 사건들, 특히 가정의 파괴를 불러온 사건들에 대해서도 육방예경은 해답을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계문화 주도할 힘있는 한국 성장에만 매달렸기에 다리·건물이 무너지는 화를 당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불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 이신지요?

▲현재 세계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슬에 묶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중생들은 더 많은 골만을 향하여 자신의 잘못을 덮어 둔채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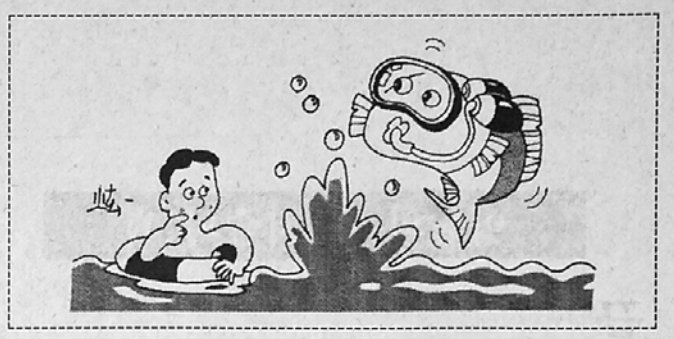
하지만 덮어둔 잘못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부채가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인연의 과보를 의외로 많이 보여주는 나라중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그 예 입니다.

한국이 그 동안의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 속에서 한국 스스로 가지고 있던 알맹이를 무시한채 성장에만 매달린것은 아니었는지요?

지난번 경주와 해인사를 들렀을때 천년 이상이 된 유물에서 한국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았던 한국의 참 모습은 충분히 세계의 문화 발전을 주도해 나갈수 있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바람직한 일과는 관계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발생한 이런 일들이 한국인들에게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일러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스스로 인과를 바로 알아 열심히 수행정진 하셨으면 합니다. 인과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수행의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 입니다.

이번 지상 설법은 지난 7월15일 서울 수효사에서 쏘비타스님이 설한 법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대 강사 송위지씨가 정리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35

양 형 진

진공묘유(眞空妙有) I

오늘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공기 중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산다. 공기 중에서 사는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듯이,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아마 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물고기가 보는 세계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내 눈 앞에 가득한 것과 같다. 따라서 물고기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보는 곳에 다른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게 물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순수한 물에 한 방울의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자. 그리고 공기 방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었던 물방울은 물 위로 튀어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물고기는 물 속에 위치한 공기 방울과 물 밖에 위치한 물방울을 보게 된다. 여기서 공기 방울이란 물의 없음을 뜻한다. 즉 물고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지만, 물이 좀 모자라는 경우 즉 공기 방울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수면 아래에 있는 물방울을 하나 집어서 물 바깥으로 들어 올리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던 세계에 두 존재자가 생성되게 된다. 즉 쌍생성이 일어난다.

이와 똑 같은 현상이 물리학에서 관측된다. 디랙(Dirac)은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시켜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시켰다.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 방정식의 해에는 보통의 양자역학에서는 나오지 않는 해가 존재한다. 그 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입자의 해와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해로서 전자에 대응하는 입자를 물리학자들은 전자에 대한 반입자 혹은 반전자라고 부른다. 반전자는 질량이 전자와 같고 전하가 전자와 반대이다. 이러한 성질을 지닌 반입자는 전자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에 대하여 존재한다. 반양성자나 반중성자가 그 예이다.

디랙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한 후 이러한 반입자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예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생성된다. 이를 쌍생성이라 한다. 또한 이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결합하면 많은 에너지를 내면서 소멸한다. 이를 쌍소멸이라 한다.

이러한 반입자는 현대물리학의 진공개념을 알아야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 진공이란 어항 속에 물이 수면 아래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진공이란 어떤 기준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이 기준 에너지를 0 이라고 정의하자. 다시 말하면 진공이란 기준 에너지 0 보다 에너지가 작은 모든 상태에 입자가 꽉 차 있는 상태이다. 어항 속의 물방울 하나를 수면 밖으로 들어 올리면 어항 속에는 공기 방울이 생기고 어항 밖에는 물방울이 생긴다.

에너지가 0 보다 작은 상태, 예를 들어 -E라는 상태에 있는 입자에 에너지 2E를 공급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입자는 E (= -E+2E)라는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이 입자의 생성이다. 그리고 그 입자가 있던 위치에는 -E라는 입자가 없게 된다. 입자가 가득 차 있는 것은 관측되지 않지만 입자가 없는 것은 관측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관측되는 반입자의 생성이다. 반입자의 에너지는 -E의 에너지가 없는 것이므로 E이다. 결과적으로 2E의 에너지가 공급되어 에너지가 각각 E인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된다. 이를 쌍생성이라 한다. 또 이 두 입자가 만나면 2E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래의 진공으로 돌아간다. 이를 쌍소멸이라 한다.

"보이지않는 공기가 눈앞에 가득하듯 공은 색의 무한한 생성 가능성을 내포"

그러므로 현대물리학이 이해하는 진공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 무수히 생성될 수 있는 가능태이다.

공은 색이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다. 색의 없음, 즉 존재가 정의되고 그를 무화(無化)시킴으로써 공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공은 색의 무한한 생성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여직원 급모집 탄허 불교 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여고 졸업자 약간명 • 30세 미만 • 불교 신자 또는 불교 활동을 한 자 • PC 가능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전화 연락처 기입)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방문요함) 제출처:서울 중구 신당3동 368-100 전 화:237-4438 탄허불교문화재단

經歷幹部招聘 귀하의 고귀한 경력을 모십니다. 당 그룹 계열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 종합상사로써 창설 5주년을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佛者님 약간명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응 시 자 격
경영관리	① 40~60 才限
지점관리	응募資格 ② 자영업 경영자 및 임원
기술영업	③ 軍·公職 퇴직자 ④ 佛敎係 관련종사자
영업관리	① 30~39 才限·大卒
전산운영	② 전산직은 20~23 才女사원

2. 전형방법 : 1차 면접후 결정
3. 근 무 처 : 종로구 관훈동 관훈B/D 7층전관

상담문의 : 737-0588~9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대 표 이 규 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업계 풍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위탁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